

건강칼럼

수족냉증, 병명이 아닌 증상이다

찬 바람이 쐬면 부는 겨울은 물론 땀이 흘릴 흐르는 여름에도 손발이 시려 괴로운 이들이 있다. 흔히 '수족냉증'이라고 하는데...



최영득

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위원장

▲병명과 증상을 구분할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족냉증은 손발이 시린 증세일 뿐 병명이 아니라는 것이다.

▲수족냉증의 진단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추위를 많이 느끼며 수족냉증이 심해진다.

일킨다. 드물긴 하지만 류마티스성 혈관염 등도 원인일 수 있는데 이런 병들 역시 혈액검사와 도플러 초음파, 혈관조영CT 등을 통해 감별해야 한다.

▲수족냉증과 레이노 증후군 추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처음에는 손끝이 하얗게 되고 파랗게 변하다가 나중에...

화될 수 있는데 이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경피증과 약간의 괴저 부위가 관찰된다.

▲레이노 증후군의 치료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전문 약물치료로 증세를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.

독자재언

연말연시 음주운전 NO

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134% 만취상태 운전자가 전역을 앞둔 군인을 치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다.

력이 떨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역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.

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이스라엘 반 여성폭력 시위 여성, 경찰에 체포



12일(현지시간)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시위를 벌이던 한 여성 인권운동가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사설

지역 발전, 능동적 관심사가 돼야

지역 발전은 능동적 관심사가 돼야 한다. 이번에 7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그에 만족해서는 안된다.

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. 도민들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.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인데...

겨울철 식탁물가가 걱정이다

겨울철 식탁물가가 걱정이다. 식재료들이 일제히 '한파경보'를 울리고 있다.

이 특히 그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지 않다. 도민 열 명 중에 네 명 꼴로 빛을 갠라 허덕이고 있다는 예전의 보도가 다시 생각난다.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